

中央藥大 同門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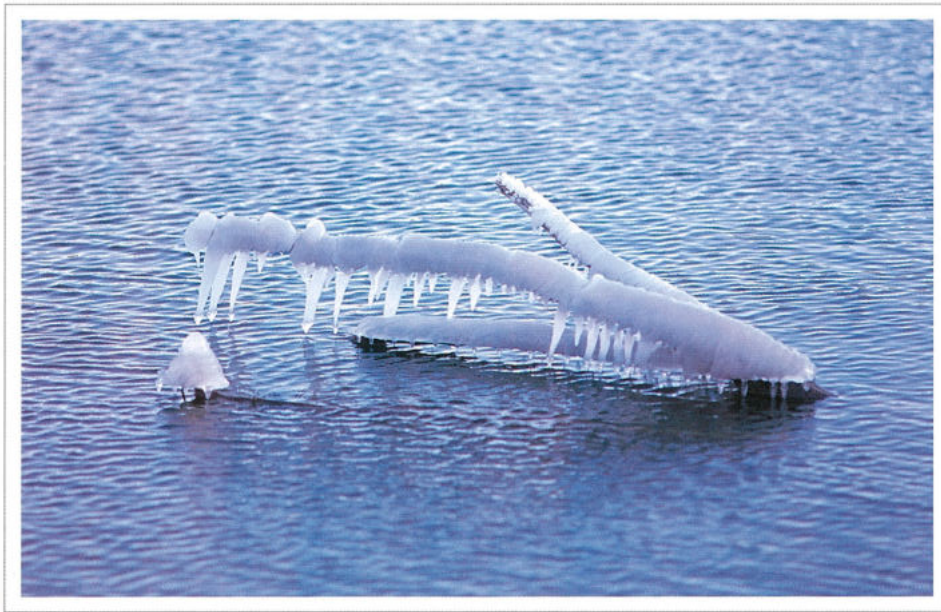
2003. 겨울호 (제11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03년도 중앙약대동문회 신년교례회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CONTENTS

CONTENTS

- 시론 / 세계속의 약학대학이 되기를 희망하며... 3
- 프로필 / 여동문회 임원단 4
- 동문회소식 / 회장단회의 6
 신년교례회 6
 발전기금 실행위원회 7
- 지부별소식/강동지부 / 어떤 모임이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8
 광명지부/ 서로 돕는 일에는 타지부의 추종을 불허한다 9
- 여동문회소식 /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서 10
- 동기별동정/6회 / 아쉬움만 남겨주는 40주년 모임을 마치며 11
 16회 / 꿈은 이루어 졌나요? 12
- 특별기고 / 조제지향적 약국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며 14
- 만평 / "비켜요! 나부터 먼저..."발전기금 조성중... 17
- 문학산책 / 신성묵 선배님을 생각하며... 18
- 별난동문이야기 /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인간을 성숙시킨다 20
- 회원동정 23
- 동문회비 및 기금 안내 / 발전기금 조성 내역 26
 동문회비 납부자 28
- 제안 29
- 편집후기 30

세계속의 약학대학이 되기를 희망하며...



유영후
(7회, 동문회장)

2003년 계미년을 맞이하여 全國 동문회원 및 미주지부를 포함하여 世界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동문회를 맡은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우리 동문들의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다 보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동문회는 동문회원들의 관심과 정성에 힘입어 1년 예산이 약 1억 이상에 달하는 등 재정적인 안정과 약사회장을 배출하는 등 약사사회의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동문회원들의 따뜻한 동문의식의 기초위에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올린 기초 위에 세워진 역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문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시설이 낙후하여 후배들의 배움의 터전인 파이퍼홀이 45년간 최신설비를 갖추지 못한채 옛 영예를 흘려보낸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모교 최영욱 학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교 교수들의 모금운동을 시발로 약학대학 발전기금을 모아 약학대학 파이퍼홀 신축운동을 시작한 것은 참으로 보람찬 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지부 회원들의 참여로 지난 7월 이후 9억 이상이 모금되었고, 전국 회원들이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숙원인 모교 신축기금 1차 목표액 25억 모금이 성공함으로써 우리 중앙약대가 세계적인 약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임기를 4개월여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문들의 열화같은 협력에 가슴벅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약대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반백년의 역사를 갖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약학대학이 되기를 희망하며 회원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가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동문화 임원단



강 옥 희
(12회, 회장)



엄 계 숙
(13회, 수석부회장)



장 레
(3회, 고문)



김 석 자
(3회, 고문)



우 정 희
(4회, 고문)



박 명 자
(5회, 고문)



신 정 숙
(6회, 고문)



정 덕 화
(2회, 자문위원)

Profile

프로필



김 경 희
(6회, 자문위원)



박 숙 자
(7회, 자문위원)



정 조 원
(7회, 자문위원)



김 춘 자
(7회, 자문위원)



김 미 자
(11회, 자문위원)



김 연 희
(8회, 감사)



문 옥 자
(8회, 감사)



이 경 옥
(19회, 총무)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謹賀新年



회장단회의



- ▲일시 : 2002년 12월 7일 (土) 6시
- ▲안건 : 1.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현황(동문회원 개인 최고후원금액 1억 2천만원 기증)
2. 동문 제약회사 발전기금 독려의 건
3. 약학대학 발전기금 운영규정의 건
4. 기타토의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3년 1월 7일 6시 동문회관
- ▲참석자 : 유영후, 박영규, 정재일, 한석원, 임상득, 김연희, 이규진, 유정사, 황공용, 강옥희, 서국진, 문재빈, 김종렬, 윤대봉, 박석동, 신상직, 정명진, 김영식, 진희역, 최영욱 학장

받으십시오



발전기금 실행위원회



- ▲일 시 : 2002년 12월 30일
- ▲장 소 : 약대 세미나실
- ▲참석자 : 유영후, 조의환, 박호일, 황공용, 서국진, 윤대봉, 최영욱, 황완균, 천영진

약학대학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목 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학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발전기금 조성위원회(이하 기금조성위)를 통해 모금되는 발전기금과 그 외 특별 기부 등으로 조성되는 발전기금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발전기금의 활용>

1. 발전기금은 약학관 신축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며, 그 외에 교육·연구 환경 개선 사업과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한하여만 집행할 수 있다.
2. 발전기금이 일정액 이상 조성되면 단계별로 약학관 건립기금(지정)으로 일정액을 전환 적립하며, 이 건립기금은 약학관 신축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모임이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일은 고무공과 같아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 튀어올라 오지만
나머지 공들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떨어트리면 깨지거나
상처를 입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김 용 의
(15회, 지부회장)

지금은 아침 7시 30분, 건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화양리에서 10년, 이곳 강동에서 개업한지 22년째를 맞는다. 약국을 문여는 시간은 언제나 같은 시간이다. 개업 이래 동문회에 참석하여 22년만에 강동동문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어떤 모임이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 지부는 초대 회장을 맡으신 8회 선배님인 이운형 회장님이 기초를 든든하게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단합되고 있다. 출발 중간에 단합된 모습을 더욱 다지기 위해 부부동반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지상의 낙원 하와이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다. 그후로 여사분들끼리 모임을 따로 만들었다.

모임 명칭은 「心中會」로 정해놓고 매월 모임을 갖고 애경사는 물론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화합이 잘될 수밖에 없는 모임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을 못했는데 1년에 한번은 하기휴가는 없지만 여름에 다시 단체해외여행을 할까 생각중이다.

우리 모임은 2달에 한번은 필수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만 원을 받

고 두명을 뽑아 10만원씩 계를 태워준다. 아무래도 참가의욕이 강해진다. 지속적으로 제약회사에서 힘들지만 지원을 받고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금이 천만원은 확보될 것 같다. 우리는 애경사적극참여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우리 모두 세월이 더가기 전에 1년에 한번은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한다. 총동문회 협조도 열심히 해야되겠다.

6시 기상, 1시간 헬스를 했었는데 요즘 자꾸 빠지게 되어 그게 걱정이다. 건강이 제일인데 더 늙기 전에 건강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되는가 보다. 책보기를 좋아하는데 저의 책상위에는 항상 3권의 책(신간)이 놓여 있다. 언제 보느냐고요? 바쁜데? 한번 해보세요. 감명깊게 읽은 책 상도의 한 귀절-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19세기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유언내용이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절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면 흩어지는 것이다.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면한 내용같다. 다시 한번 재독하려 한다. 인생은 다섯가지 공을 가지고 공중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코카콜라의 책임자가 씀).

일, 가족, 친구, 건강, 마음!

일은 고무공과 같아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 튀어올라 오지만 나머지 공들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떨어트리면 깨지거나 상처를 입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게 가다듬느냐가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생각한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일을 시작한다.





안 병 식
(13회, 지부회장)

서로 돕는 일에는 타지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광명시 동문회는 현재 3회 선배부터 44회 후배에 이르기까지 38명의 동문들이 오손도손 동문애를 주고 받고 있다.

광명시 동문회는 1980년 경기도 시흥군 소화읍 이 시로 승격되면서 태동됐다.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으로서 활동하던 이송학(5회)선배가 소하시로 결정되었던 市의 명칭을 시준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개명을 요구하여 통과됨으로써 “光明市”가 그야말로 광명을 찾게된 일화가 있다.

당시 천우사 약국을 하던 이송학 선배는 그 후 경기도 약사회장을 역임하며 오늘의 광명시 동문회를 이끄는 주축을 이루어 오셨다. 이송학 선배의 뒤를 이어 동문회를 이끌던 상병준(9회) 선배는 그 후 시흥시로 이전하여 현재 시흥지부장을 맡고 있다.

광명시 동문회는 현재 3회 선배부터 44회 후배에 이르기까지 38명의 동문들이 오손도손 동문애를 주고 받고 있다.

광명시 동문회의 활약상은 광명시 약사회를 보아 알 수 있다.

광명시 약사회 초대회장에 본인이 당선된 이후 서태옥(12회) 동문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임상규(23회) 후배가 광명시 약사회 회장을 맡고 있어 중앙대 약대의 전통을 광명시에서 잘 이어오고 있다.

필자는 동문의 힘을 받아 로타리 3690총재(2000~2001)도 역임했는데, 역시 선배인 안병한(6회) 로타리 총재(92~93년)의 뒤를 잇는데도 성공한 셈이다.

광명시 동문회의 동문의식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투철해서 비록 의약분업 이후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돕는 일에는 타지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바로 얼마전 유영후 동문회장과 모교 학장이 참석한 동문회 석상에서 모교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이 약정된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 동문회는 계속 동문결속을 통해 모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서

졸업이라는 시간 위에서 아쉬움만큼이나 큰 설렘과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제 안에 이것들을 심어준 우리 중대약대, 그 안의 사람들...
영원히 소중할 것이고,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원 정 은
(47회)

제겐 돌이켜 볼 때마다 웃음 지어지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동안 실험반과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무엇보다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 함께 다녔던 여러 산들... 힘든 어느 날 열어보면 기쁨과 용기를 꺼낼 수 있는 보물 상자와 같은 대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취업문제로 고생하는 타과 친구들에 비한다면 저야 행복한 졸업생이라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참약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은 학점에 비례하는 지 자꾸 불안해집니다.

저는 3월부터 전공약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많은 약대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약학과를 지원했던 것은 아니어서 처음엔 약대과목들이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이게 과연 내 길일까?' 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수님, 선배님들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임상약학'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병원에서 임상관련 일에 보다 많이 관여하는 전공약사 과정을 밟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부각되어 온지라 6년제 개편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지만, 현재 학교에서의 임상교육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문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임상약사의 위치가 탄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약계 모두에게 필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점차 그 입지를 다져가야 합니다. 임상약사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은 약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훌륭한 임상약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의 임상약사의 입지를 다지게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후배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우린 배워왔고, 그럴 자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용기있는 약대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선배들의 당부를 들어왔고, 저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며 보다 멋진 우리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학부제인 타과에 비해 약대는 같은 길을 가이하는 공동체이므로 동문사이의 조언과 격려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공약사 과정을 준비하며 많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런 대화속에서 제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제 안에 이것들을 심어준 우리 중대약대, 그 안의 사람들... 영원히 소중할 것이고,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쉬움만 남겨주는 졸업 40주년 모임을 마치며

박 정 배
(6회, 동기회장)

졸업 40주년, 아직 멀리 있는 남의 일처럼 생각되다 막상 졸업 40주년 모임을 갖자는 안내문을 작성 하다보니 많은 옛 이야기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 갑니다. 10대의 꿈많은 청년들이 모여 4년 여의 학창 시절에는 4.19, 5.16 등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 20대의 혈기 왕성한 청년으로 자라 중앙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다보니 이제는 귀밑머리 희끗희끗한 60대 초로의 노인 아닌 노인이 되어가고 있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은 이른 새벽 용인 은화삼CC에 모인 육구회 회원들과 지방에서 온 친구들과 미국에서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모여 새벽 하늘을 가르며 친선 골프 모임을 갖고 여유있게 모임 장소인 올림픽공원 앞 한미타워 내 한미약품 사옥2층 파크홀에서 오후 6시 조금 지나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오랜만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졸업 후 외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많은 동창 중 서병세, 김영수, 박노철, 최수홍 친구가 수만리길 멀다 않고 찾아와 고마웠고, 국내에서는 경향 각지에서 모이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어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변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옛 교수님 중 한덕용, 김일혁, 김종갑, 허인회 명예교수

님이 참석하였으나 양형호 교수님은 지방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으며 모교 최영욱 학장과 유영후 동문회 회장 정재일 7회 동기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하여 자리가 더욱 화기애애 하였습니다.

1부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동기회장을 역임한 박정배 후임 회장에 한미약품 임성기, 부회장에는 최길영, 안인혁, 장정희, 총무에 배동수, 감사로는 박정배, 홍병석이 선출되었으며, 최영욱 학장의 모교 현황 소개 및 발전기금 모금취지를 간략히 소개하여 현장에서 몇몇 회원이 납부를 예약하고 많은 회원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동창회에는 장학기금으로 3,000,000원을 기탁하고 일부 회의를 마치고 한덕용 교수님의 건배 제의로 여흥을 즐기며 시간감을 아쉬워 할 때 밤늦으니 다음날을 약속하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최 광 식
(16회, 동기회장)

꿈은 이루어 졌나요?

진정 보고 싶던 친구들과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고...

68동기가 청운의 꿈을 안고 흑석동 교정을 나온 지 30년이 흘렀다.

저마다 살아온 30년이 다 남다르고 의미깊은 소중한 세월이었기에 오랫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젊음의 꿈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지면서 무척이나 그리워졌다. 우리는 이번 30주년 행사에 졸업 후 동창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적극 동참시키자고 다짐을 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반 동안 숨가쁜 동원 작전이 시작되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고 무관심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고 했던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우정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은주 동기는 눈물어리고 설득력 있는 호소문을 보냈고 전임 회장단 이상규, 강명채, 안태환, 김광식 동기가 주축이 된 추진위원 20명은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하였다. 여성동기들과 지방 친구들에게 감성을 일깨우는 신간 서적과 시집, 편지 보내기, 미국에 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삶의 현장소식을 편지나 축전으로 보내달라고 편지와 전화를 하였다. 이렇게 보낸 2주간의 편지가 400여 통, Fax가 200여 통, 책 50여권이 되었다.

계속적인 전화연락과 편지 공세에 많은 동기들이 사전에 회비를 보내주었고, 대부분 동참할 의사를 해주었다. 부득이 참석은 못하지만 회비는 보내준 친구도 10여명이 되어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최승호 박사는 회비는 물론 가족 사진과 연구하는 모습의 사진도 동봉해 주었다.

우리는 졸업 30주년 행사를 청운의 꿈을 안고 교정을 나온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실내장식은 물론 영화 '친구의 포스터도 구해서 걸어 놓았고, 25주년 때 행사사진도 대형으로 뽑아 걸어 놓았으며, 미국에서 보내온 최승호 박사의 소식과 가족사진도 게시하였다.

2002년 12월 8일.

흰눈이 조금씩 오더니, 오후가 되니 폭설로 변해서 전국의 교통이 마비가 되어 지방에서 올라오려던 친구들도 비상이 걸렸다. 악천후 속에도 은사님 여덟 분, 약대 동문회장님, 최영욱 학장, 17회 후배와 동기 52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워 주었다.

예정시간 보다 15분 늦게 김종갑 명예교수님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축하말씀으로 '큰 행사나 좋은 일에는 하늘도 축복해 주시려고 큰 눈을 내립니다. 좋~은일이 지요, 잘~될 겁니다.' 라고 눈이 많이 오는 것을 하늘의 축복으로 돌리면서 동기들의 마음을 흐뭇하게해 주셨다.

곧이어 유영후 약대 동문회장님께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축사에서 유 회장님은 우리 68동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일줄 몰랐다면 동기들의 활동상을 열거해 주셨다.

강명채(삼성당 출판사 회장), 강경식(속초시 약사회장), 김관호(양양군 번영위원장), 홍찬의(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장), 변영호(동작구 부회장), 허영(삼일제약 사장), 장건(노보노디스크<주> 전무), 노상섭(한농제약 사장), 박재홍(한농제약 상무), 박주영(대구광역시 시의원), 박상환(전 충남 시의원), 최

용남(전 인천광역시 시의원), 박정우 형님(동한당 한의원), 송용만(고양여자종합고교 총무부장), 최광식(식약청 특수독성부장), 정수백(교회목사)등 많은 동기들이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셨다.



다음순서로 이은주 시인의 시 낭송 '오늘은 행복하답니다'가 울려 퍼지니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모두 30년 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복한 모습이였다.

나는 그 순간 지난 6월25일 갑자기 위암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가며 감회에 젖었다. 행사 한달반전에 동기 회장직을 맡게 되어 3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쳐야겠다는 책임감으로 항상 긴장하며 지냈는데, 그 순간만은 마음이 편안해지며 열심히 일 해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식사와 여흥이 시작되자 2시간만에 양주 20명이 동이 났고, 사제간에 친구간에 즐거운 대화는 끈임 없이 계속되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진정으로 오랜만에 느껴 보는 화합의 장이었다. 이 분위기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다가 새벽에 지방 친구들을 보내주고서야 끝이 났다.

우리는 일년에 한번이상은 전체 동기가 지방을 돌아가며 등산 대회로 모일 것을 약속하였고, 첫 행사로 2003년 6월 8일 (68동기회) 박창호 동기가 있는 함양에서 지리산 등반과 주위의 문화유적 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 동기들은 학창시절보다 더 가까운 친구

로 지내며 더 자주 모이자고 이구동성으로 외쳤고, 회장은 친구들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였다.

젊음은 단순히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꿈은 계속 될 것이며, 젊음은 꿈과 희망을 간직한 동기들과 함께 한다면 영원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최영욱 학장의 모교사랑 발전기금 설명회에 힘입어 즉석에서 4명의 동기가 기금을 조성해 준 것에 감사 드리며, 모교사랑에 더욱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유영후 동문회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2003년 6월 8일 지리산 정기모임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68동기의 영원한 젊음을 위하여 68동기 파이팅!





백수현
(13회, 동대문구 진당약국)

조제지향적 약국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며

서론.....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흘렀다. 시행 1년 만에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처사라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원에서 주사제를 취급하게 한 사건을 필두로 수많은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초기 한때 약학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단순 조제기술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팽배하기도 했으나, 처방 그대로 약을 조제해 준 경우에도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약사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중심으로 개정 약사법에 '복약지도'에 관한 조항(약사법 제2조 16항 복약지도의 정의-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마련되었으며, 2002년 공포된 시행규칙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까지 명시되었다.

일반의약품 판매 시에도 역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사항에 준하여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약사법 제41조 3항). 이렇게 볼 때 복약지도는 약사만이 할 수 있

는 의약분업 시대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약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약국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덧붙여 한방과립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약국의 조제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약국의 활로를 개척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자.

는 고유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인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 약국에 가서 조제하더라도 처방전 그대로 조제할 것이므로 다 똑같은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 그러나 약국, 특히 이른바 동네약국 입장에서는 환자의 집

안사정이나 환경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점을 환자들에게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의약분업 이전부터 다니던 단골약국의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성분에 대한 특이반응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기록과는 상관없이 평소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성격이며 생활환경까지 알고 있어 처방을 검토하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의약분업 시대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약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약국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덧붙여 한방과립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약국의 조제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약국의 활로를 개척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자. 다시 강조하거니와 환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만 보고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조제만 해주고 끝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스스로 약국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일이다.

본론

이상적으로 본다면 약사는 이윤창출이나 약국 경영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는 사람(clinical purist)'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약국을 원활히 운영하여 약국의 본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약국이 단순히 조제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제는 도외시한 채 일반의약품이나 기타 품목만을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의 정신을 보더라도 약국은 본질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며, 부수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보장되어 있다(제2조3항).

따라서 지역과 특성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조제실을 중심으로 약사의 활동영역이 전개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동네약국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더 조제지향적인 생각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80년대나 90년대 혹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꽤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다를 바가 없다. 기본적으로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방 등을 이용한 약국의 조제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가치료(Self Medication 혹은 Self Car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치료에 있어서 이른바 소비자로서의 주권의 한 표현으로, 좋게 보아 의사 약사와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정립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과잉진료, 과잉투약이라는 과거의 불신에서 유래된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개념적으로는 진단이나 약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는 환자 자신이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구입한 후 자신의 증세가 호전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며 스스로 치료하는 행위이되, 마스크 등을 통해 의료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 이를 전혀 무시할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문의료기관의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는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care하는 약사의 능력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면에서 일반의약품 즉 대중약(OTC dru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아쉬운 점을 인식하여 나름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방의 산제나 과립제를 이용한 능동적인 활로개척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더 느꼈으면 하

는 바람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처방전에만 매달리다가는 언젠가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가치있는 처방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의약분업의 시대에 약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방제제를 응용한 처방을 한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고 싶다.

결론

이상에서 약국은 예나 지금이나 조제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와 약이 분리된 오늘날 어떻게 조제지향적 약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피상적으로나마 살펴 보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조제중심적인 약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처방전 환자의 경우 복약지도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약국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들이 다른 약국보다 복약지도를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임상약학에 관한 공부를 더 열심히, 더욱 폭 넓게 해야 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화법에 관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방전 환자가 아닌 경우 약국의 약사라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한방의 산제나 과립제를 적극 활용하여 조제지향적 약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보다 전문적인 약사

조제중심적인 약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처방전 환자의 경우 복약지도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약국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들이 다른 약국보다 복약지도를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임상약학에 관한 공부를 더 열심히, 더욱 폭 넓게 해야 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화법에 관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로서의 예우를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침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Get the Answer’이라는 말이 있다. 의약분업 3년째가 되면서 약사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복약지도 캠페인과는 상대적 위치에 있는 용어이다. ‘내가 복용할 약에 대해 내가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받자’라는 취지의 이 캠페인

은 1980년대 미국에서 약에 대한 정보를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 시작된 국민운동이다.

즉, 환자 스스로가 (1) 약의 이름과 효능, (2) 복용 시간과 방법, (3) 약을 복용할 때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수 또는 다른 약이나 주의해야 할 행위 (4) 부작용 발현시의 대처방안, (5) 설명서의 확인 등 5가지 사항을 꼭 물어보아 확인하자는 내용이다.

1983년 이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약사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Give the Answer(약에 대한 문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자) 캠페인’, ‘Brown Bag(집에 있는 약들 중에 알지 못하는 약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와서 확인하자)’ 캠페인이 함께 시작되었으며, 관계당국은 나름대로 복약지도 의무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Get the Answer’ 캠페인이 벌어져 환자가 자기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복용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고 지켜 약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으면 좋겠고, 자가치료 운동도 함께 떠나 우리나라 의약분업시대의 의료보험재정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켜요! 내부터 먼저 ..."

약대발견기념 조성중



가자! ... 가자! ...

파이퍼홀의 추억여행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박계환
(18회, 부회장)

신성목 선배님을 생각하며...

2002년이 저무는 지난 12월 28일 한밤중에 구로구 약사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분회 신성목 감사의 부음을 휴대전화로 전해들었다.

지난 추석 무렵 신감사에서 갑자기 일산병원에 입원했다는데서 부터 불과 두어달 지나서였다.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하여 신상직, 신성익 동문과 함께 그날 밤 일산병원을 찾아갔었다. 우리가 병실을 방문하자 신감사는 전혀 환자같지 않은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본인도 어이가 없다는 모습으로, 싱글골퍼의 힘이 넘치고 활기에 찬 모습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뭐하러 왔냐? 수술도 안하고 약물치료로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래, 그래서 이 병원으로 왔어. 조금 지나면 골프 다시 할 수 있겠지 뭐. 우리 연습장 사람도 나보다 훨씬 허약한 사람인데, 여기서 내 담당의사한테 치료받고 다시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걱정하지마.”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술, 담배는 입에도 안대고 하루도 빠짐 없이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일주일에 한두번은 반드시 필드에 나가는, 몸살 한번 걸리신 것을 본적이 없는데.

참, 혼란스러웠다.

사는게 뭔지, 건강상태의 개념이 무언지,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 왔다는데 암세포가 간에서 위장까지 전이되어 수술불능의 상태에 이를때까지 전혀 알 수 없었다니.

그 분의 골프에 대한 애착과 집념은 놀라웠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도 대단했다.

나는 그 분의 스윙 폼, 그중에서도 특히 드라이버의 스윙 폼이 마음에 들었고, 어설피게 흥내를 내보려다 상당기간 골프가 엉망이었고, 여러 사람에게 핀잔만 듣다가, 결국 아무나 그런 스윙을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 지금도 스윙이 어설피지만, 그러나 그 분 흥내는 포기한 상태로 있다.

언젠가 그 분이 다른 사람에게



“박회장 스윙 폼을 잡아 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줘야 하나, 스윙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라고 하시더라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해외여행도 골프를 위해서, 동문회 활성화도 골프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도 골프의 생활화로 이루시더니, 그 분이 가시고 나서 생각해보니, 하늘 나라에도 골프가 있는 것인지, 부킹은 잘 되는지, 그래서 스피디하면서 샤프하고 마치 일본 사무라이 검객이 장검 휘두르는 듯한 폭발적 스윙 폼으로 70대 스코어를 유지하시는지 궁금하다.

우리 후배들은 차라리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들 최소한 이삼년은 더 골프를 즐기실 수있었던 것 아닌가 아쉬워 하였다.

동남아시아 골프여행 안내를 보니 무제한 라운딩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18홀이 너무 지루해 14홀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게 무제한 라운딩이란 지겨운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 분은 어쩌면 하늘 나라에서 무제한 라운딩, 약국걱정, 집안걱정, 건강걱정 다 떨치고 실컷 골프를 즐기시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회장님께

공사다망하신 분이 모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솔선수범 하시는 것을 뵈옵고 너무나 잘못처신해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 가족과 나, 사회 국가와 나, 학교와 나, 그리고 부부로서 나까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는데, 사람이기에 이런 인연들은 도리로서 보답하며 살아가지요. 부모 가족을 챙기고, 사회 국가에 국방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오직 학교관계에서만은 졸업과 동시에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속죄하는 심정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약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죽도록 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겠기에 염치없이 요청을 합

니다. 가능하도록 꼭 도움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저희 3회 동기 그리고 선배님 후배동문 모두에게 격려하고 동참하게 유도해 주십시오.

11월 2일 2003년

New York Manathan 26.2Mile을
뛰겠습니다.

조영만(3회)

Lebanon VA Medical Center(Pharmacy)
1700s, Lincoln AVE
Lebanon, PA 17042
Work (717) 228-6009
Home (717) 272-7632



AIR MAIL
유영만 후 회장님
2월 특별회 장광구 선생동 709-38번지
태허안호코스빌링 1309호
Seoul 06190/2000 KOREA



강 명 채
(16회, 주식회사삼성당 회장)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인간을 성숙시킨다

어떤 일이든 한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정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니던가. 비록 약학이라는 전공과는 거리가 먼 출판계에서 활자와 씨름하고 있지만, 1968년 창립되어 30

여 성상을 이어 온 현재의 삼성당을 맡은 이래 한눈 팔지 않고 한국출판업계의 중견으로 이만큼 키워왔다는 뿌듯함을 나뉠대로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바로 그 책이 인간을 성숙시켜 간다'는 믿음으로 단 한권의 책이라도 내가, 내 아내가, 아니 내 아이들이 마음놓고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아래 내용은 물론이고 활자 한자 한자에까지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책을 만들어 오는데 전념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가장 큰 버팀목이 된 것 같다. 어찌 보면 약이라는 것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아픔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면, 책 역시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고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는 의미에서 그 연원은 같다고나 할까. 나의 뿌리는 출발선상에서 전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오면서 형님께서 경영하시던 서적상에서 아르바이트를 줄곧 하기는 했지만, 약대를 졸업할 때까지 그것이 내 평생의 본업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교실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생약반에 가입하여 약학도의 장래를 그려보며

출판쟁이가 내 꿈이요 비전이다. 철저하게 전문성을 갖춘 쟁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 공부를 하고, 투자한 만큼 좋은 책이 나오더라는 체험의 진실을 바탕으로 요행에 의존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정도를 견고자 한다.

실험에 열중하기도 했고, 서클활동으로 약창에 들어 낭만을 구가하기도 한 전형적인 약대생이었다. 곧로 위에서 생약추출물을 농축하던 과정에서 잠시 조는 바람에 농축액이 쏟아붙어 플라스크 폭발

직전에 선배이 뒷통수 가격으로 정신을 차린 적도 있고, 한편으로 동급생 중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주량으로 약명이 높은 화려한 전적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어느날 혜성처럼 나타난 지금 성남에서 태평양국을 경영하고 있는 후배 이인영군과 막걸리통을 앞에 놓고 정면대결하여 타이틀을 상실하긴 했지만.

거칠 것이 없는 학창생활이었다. 생각만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장래에 화장품에 대해서 깊이 매달려보겠다는 막연한 꿈도 키우고 있었다. 약사고시를 앞두고 복학한 어느 선배가 "자네가 붙으면 다 붙고, 떨어지면 자네가 1번일 것"이라는 농반 진반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 해 약사고시에서 단번에 당당히 합격했다.

한계야 물론 있었겠지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은 이후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어떻든 약대를 졸업하는 날, 나뉠대로 견실하게 키워온 서적상을 운영하시던 형님께서 강력하게 당신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셨으나, 4년 전공한 약

학, 대체 약이 뭔지는 알아야겠다는 주장을 앞세워 형님을 돌려세우고는 군입대까지 9개월간 약국을 경영했다. 내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약업계 생활이 된 셈이다.

그렇지만 운명은 어찌할 수 없는 법, 제대하는 날 형님께서는 그 동안 사업을 맡아 잘 운영하던 조카를 끝내 독립시키고는 무조건 회사를 맡을 것을 명령, 그날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97년도에 그 형님에 세상을 달리하시는 슬픔을 겪었는데, 과연 형님의 선택이 옳으셨는지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3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우리 문화계에 나름대로 일조한다는 작은 보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니 형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싶다.

지금은 우리 회사의 모체이자 지주인 전집류 위주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당을 비롯 성인용 단행본을 내고 있는 대산출판사, 아동 및 여성용 전문의 여명미디어, 회화서적 및 학습프로그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글로만, 유아교육의 길잡이 한국비고츠키, 교육용 완구류 수입 및 유통을 맡고 있는 아이큐박스 등 미디어 부분을 포함, 소위 종합아트회사로서의 면모를 구축해 놓고 있다. 철저하게 전문화시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자는 지론으로 모든 과정이 독립채산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출판업에 투신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세속적인 성공의 척도를 떠나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 두 가지 정도는 되니 과히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동아일보사와 협력하여 27년간을 지켜온 '전국초등학교 독서감상문 및 작문 대모집' 사업의 후원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던 이 일

이 누구도 이렇게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IMF 때는 직원들의 고연이 아니더라도 좀 쉬고 싶다는 인간적인 고뇌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응모한다면 중단할 수 없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따지고 보면 다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당연한 보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슨 무슨 출판대상도 적지않게 수상했지만, 그때 초등학교생들이 지금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연락이 지속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요 귀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이름도 모르는 독자들의 엽서며 이메일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큰 자선임을 굳게 믿으며 나타해 지는 자신을 추스르고 있다.

두 번째는 1998년 출판업계에서는 최초로 북한 문화성 산하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독점적으로 출판계약을 체결한 일이었다. 지금이야 여러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인 당시만해도 중국의 베이징을 수시로 오가며 수많은 접촉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일이었다. 지금이야 말이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몇 가지 책자의 출판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항적으로 출판단지를 조성한다는 더 큰 그림까지 그려가고 있었다. 북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에서 유희 인쇄설비를 지원받으며, 물류의 비용처리의 문제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골격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라는 특수 상황에



▲제25회 독서감상문 특상 시상식



▲제34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

서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공개적인 마케팅은커녕 소극적으로나마 회사의 홍보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몇몇 언론에서 끈질기게 추적하여 동아일보가 특종을 터트렸고, 그 이후 다른 일간지며 YTN의 취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출판업계에서 최초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자부심만 남기고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 못내 아쉽다. 그때 협정체결로 햇빛을 못 본 것이 '북한 전통요리 바로 그 맛 266선', '북한 연회요리 손님 접대 일품요리', '북한 생활요리 맛자랑 상차림'의 풀컬러 요리선집을 비롯 조선의 민족 전통 시리즈로 구전문학과 민속음악을 출간할 수 있었다. 경영상의 수치 면에서는 당연히 내세울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 경험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어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판인으로 남북교류에 어떤 식으로든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흔쾌히 나설 것이다.

오히려 회사 성장에 도약의 밑거름을 만들어 준 것은 1991년을 기점으로 국내 최초로 전집 CD화에 성공한 세계클래식대전집(클래식 프레라인), 세계 영화음악선집, 세계팝뮤직대전집이 참신하고 과감한 기획의 힘을 발휘해 많은 이익을 창출해 주었다. 지금은 각 계열사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전문분야에서 유아에서 성인까지, 고전에서 오락이나 외국어

회화 같은 실용분야까지, 활자에서 CD나 DVD에 이르기까지, 단행본에서 전집

2000년/동아일보

**北의 출판 도서를
南서 出刊 첫 계약**

삼성당-조선출판물수출입사 협의의 교환

남북한간 10여종의 출판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서출판 삼성당(북측 강명태 대표)은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동성 산둥(山東)주 출판물수출입사 협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회담에서 '조선의 민족 전통 요리선집'과 '조선의 민속 전통 음악선집' 2종의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하고 북측에서 출판물로 교환할 권리를 확보했다. 북측에서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한 삼성당은 북측의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한 북측 출판물수출입사 협회와 '조선의 민족 전통 요리선집'과 '조선의 민속 전통 음악선집' 2종의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하고 북측에서 출판물로 교환할 권리를 확보했다. 북측에서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한 삼성당은 북측의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한 북측 출판물수출입사 협회와 '조선의 민족 전통 요리선집'과 '조선의 민속 전통 음악선집' 2종의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하고 북측에서 출판물로 교환할 권리를 확보했다.

류

2000년/일간스포츠

책 소식

조선의 민족 전통 요리선집 1·2권
북한당국과 독점계약출판

조선의 민족 전통 요리선집 1·2권은 북한당국과 독점계약출판으로, 삼성당에서 북측에서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한 북측 출판물수출입사 협회와 '조선의 민족 전통 요리선집'과 '조선의 민속 전통 음악선집' 2종의 출판물 수출권을 획득하고 북측에서 출판물로 교환할 권리를 확보했다.



▲2000년 서울 국제 도서전 참가



▲전38권(영국자:10권, 삼국자:10권, 수호자:10권, 초한자:5권, 패자종이:3권)

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포인트를 비옥하게 가꾸는데 작은 발자국을 찍어가고 있다.

당연히 출판인으로서 한눈 팔지않고 정진할 것이며,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것이 내게 부여된 사명임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나가고자 한다. 출판쟁이가 내 꿈이요 비전이다. 철저히 전문성을 갖춘 쟁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 공부를 하고, 투자한 만큼 좋은 책이 나오더라는 체험의 진실을 바탕으로 요행에 의존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정도를 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자기 일에 미치라는 것이 내 주문이다. 무슨 일이고자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전공인답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우리의 입지는 넓어질 수밖에 없음을 꼭 강조하고 싶다.

대산출판사 북한서적
관련 신문기사

후배 사랑에 격식은 필요 없지요!

새가정약국 방 순 환 동문(10회) 약대발전기금 1억2천만원 기증



억2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증했다. 방 동문을 잘 알고 있는 동문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동문회나 후배들 관련된 일이라면 두말 않고 앞장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나, 회무와 관련된 직책은 물론 동문회의 격의없는 직책까지도 한사코 사양하며 묵묵히 약사로서의 천직을 실천하는 선배로서 후배들의 신망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일 역시 철저히 익명을 요구했으나 기금조성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되는 원칙

"제가 학교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보탬이 학교발전을 위해 쓰여진다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일이지요."

중앙약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작년 7월부터 약학관 신축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약대발전기금조성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진행되고 있던 지난 연말 청담동에서 새가정약국을 경영하는 방순환 동문(10회)이 개인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1

때문에 부득이 외부로 알려졌으며, 회장단의 감사인사 방문조차도 말릴 정도로 얼굴 내세우기를 극력 마다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일반회원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기록제 역할을 한 동문회보의 가치가 소리소문 없이 또 한번 입증된 기쁨은 덤으로 얻는 수확! 말보다 실천으로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약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결혼

- 박승보(11회) 동문 2002. 11. 9 자녀결혼
- 전승규(7회) 이사 2002년 11월 17일 자녀결혼
- 장영조(10회) 이사 2002년 11월 23일 자녀결혼
- 배영식(3회) 이사 2002년 12월 28일 자녀결혼
- 김철홍(11회) 동문 2003년 1월 9일 자녀결혼
- 정덕호(11회) 부회장 2002년 1월 19일 자녀결혼

부음

- 남기탁(12회) 2002년 11월 25일 모친상
- 변상훈(14회) 2002년 12월 23일 장모상
- 신성목(7회) 이사 2002년 12월 29일 별세
- 강승안(7회) 2002년 12월 31일 장인상

행사

- 2002년 11월 2일 6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신임회장 : 임성기



- 2002년 11월 3일 30회 정기총회
회장 : 김광식



- 2002년 11월 22일 중구지부 모임
회장 : 정훈교



- 2002년 11월 9일 12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 노덕재
총무 : 심재웅



- 2002년 11월 22일 강동지부 모임
회장 : 김삼균



- 2002년 11월 17일 ROTC 정기총회
신임회장 : 임상묵



- 2002년 11월 30일 26회 졸업20주년 기념행사
회장 : 조병일



- 2002년 12월 4일 감국회 모임
회장 : 강옥희



- 2003년 1월 11일 25회 동기회 모임
회장 : 이내흥



- 2002년 12월 8일 16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
회장 : 최광식



- 2003년 1월 7일 신년교례회



- 2002년 12월 5일 제23회 모임
회장 : 김영식



- 2003년 1월 19일 7회 정기총회 모임
회장 : 정재일



- 2002년 12월 21일 강서·양천지부 모임
회장 : 오상동



- 2002년 12. 30일 약학대학발전기금 실행위원 모임
- 2002년 12월 6일 수원지부 정기총회
회장 : 강응모
- 2002년 12월 7일 회장단회의
- 2002년 12월 20일 광명지부모임
회장 : 안병식
- 2003년 1월 24일 평택지부
회장 : 황태선

발전기금 조성 내역

총 9억 2천 5백 4십 만 원 (2003.1.22 현재)

◆ 교 수 : 총 11,200만원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 학 생 : 총 5,350만원

◆ 동문회장단 : 총 13,300만원

유영후(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조의환(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김현태(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임상목(500)

◆ 단체 기부 : 총 900만원

- 중삼친목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개인 · 부부 동문 : 총 61,790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1회 :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흥만(300)

2회 : 고두훈(박명자 부부, 600), 홍순각(500), 서화택(500)

4회 : 김기호(500), 허인회(500)

5회 : 박명자(고두훈 부부, 600), 이송학(300) 이해석 · 강태일 부부(1,000)

6회 : 김경희(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홍병석(300)

7회 : 강승안(500), 김영일(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유영후(1,000), 유운재(300) 이기안(노신희 부부 : 500), 인고길(300) 정재일(500), 김정부(300), 한철희(300) 이양현(500)

8회 :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찬수(300), 임상목(500), 조의환 (1,000) 한석원(500)

9회 :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 부부 : 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10회 :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유정사(500), 이대운(300), 이양원(300)

11회 : 김창중(500), 민대식(30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12회 : 강옥희(500), 김 구(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호섭(300)

13회 : 김종성(400), 문재빈 · 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 500), 조종목(300) 조성복(홍순경 부부 : 500)

14회 : 김종열(500), 윤대봉(500)

15회 :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임영식(300)

16회 : 김광식(300), 김선기(300), 윤영로(200) 박종애(이종각 부부 : 500), 조기현(300)



방 순 환 (10회)
(1억2천만원)



박 영 찬 (12회)
(1천만원)



안 병 식 (13회)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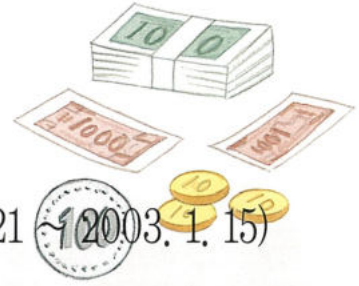


박 종 화 (23회)
(1천만원)

-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 500)
 17회 : 신상직(500), 양희익(300)
 18회 : 강응모(성낙순 부부 : 5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19회 :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20회 : 김영섭(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 1,000), 정영수(300)
 정찬현(400), 최운환(300)
 21회 :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22회 : 김홍진(500), 정진호 · 강명희 부부(500)
 손의동(500)
 23회 :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정덕기(300)
 24회 : 김관식(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 500)
 윤규형(500), 이광섭(300), 이범도(300)
 임무호(500), 최영욱(1,000), 함삼균(500)
 홍용기(300), 황규진(300)
 25회 :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 500)
 위성건(500), 이내흥(300), 이민원(5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최두주(300)
 26회 : 김안식(300), 김영후(300), 문형철(300)
 박재길 · 오옥희 부부(500), 심상수(500)
 이창훈(이숙희 부부 : 500), 정태형(300)
 진희억(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라종우(300)
 27회 :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방만성(조순연 부부 : 500)
 최기선(300), 박수길 · 이정아(500)
 28회 : 김영희(300), 김유곤(500), 양덕숙(300)
 김희식(김승재 부부 : 500), 임채욱(500)
 이숙희(이창훈 부부 : 500)
 29회 :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 500), 서경원(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정진호(300)
 30회 : 김광식 · 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이인재(300)
 장부자(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 500)
 조덕희(300), 천세영(300)
 31회 : 김하형(500), 이현숙(임경원 부부 : 1,000)
 박건규(50)
 32회 : 고은미(300), 채영주(100)
 33회 : 박재훈(240)
 34회 : 민성철(300), 이선우(300)
 35회 : 권준한(300)
 36회 : 방극상(50), 안영운(300), 임성호(300)
 37회 : 오상희(100)
 38회 : 박웅석(300)
 40회 : 한국약품(이병두, 300)
 43회 : 김종호(1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비 납부자 (2002. 10. 21 ~ 2003. 1. 15)

회장단 회비(연24만원)

윤대봉(14회), 박석동(15회), 김승태(15회),
김종환(17회), 정명진(18회), 박계환(18회),
김경오(19회), 이경옥(19회), 김현태(20회),
김수배(21회), 김영식(23회)

이사회비(연12만원)

1회 : 김옥동	2회 : 지선훈
4회 : 이연수, 이창우	5회 : 이송학
6회 : 안인혁, 김경희, 안병한	7회 : 이양헌
9회 : 상병준	10회 : 김삼균
11회 : 김창중	14회 : 김종렬, 정진모, 상경숙
15회 : 김용의	16회 : 이상규
17회 : 신상직	18회 : 이훈복
24회 : 조중래, 이범도	

일반회비현황(연2만원)

1회 : 김순정, 김옥동
2회 : 최정선, 최영대, 지선훈
3회 : 김은하
4회 : 이경석, 이연수, 이창우
5회 : 임갑환, 김명자, 이송학
6회 : 홍헌표, 홍병석, 안인혁, 김경희, 안병한
7회 : 노동호, 정현자, 인고길, 이사회, 조경신, 배정명, 이윤재, 이양헌
8회 : 정충일, 정재용, 권태수, 김성덕, 최문정, 김 철, 김범수, 안승간, 김원희, 최승치
9회 : 김광자, 박종환, 문영동, 윤광노, 김수홍, 상소웅, 박장규, 박지상, 상병준
10회 : 박상길, 박광일, 정송수, 김삼균
11회 : 서세양, 하만웅, 유병태, 이해일, 김창중
12회 : 유진수, 임옥순, 이정희, 최덕구, 원은한, 이병재, 박병달, 박진환
13회 : 김윤명, 박학용, 최승기, 이종진, 김영덕
14회 : 유효성, 전영표, 안태화, 윤대봉, 김종렬, 정진모, 상경숙

15회 : 최진혁, 김태영, 왕수연, 정현우, 박석동, 김승태, 김용의
16회 : 최광식, 송용만, 이상규
17회 : 김재천, 선우영환, 임환옥, 김종환, 신상직
18회 : 최정순, 전준이, 홍현식, 이강원, 정명진, 박계환, 이훈복
19회 : 조기상, 배영덕, 김동희, 김경오, 이경옥
20회 : 이재형, 박영기, 이상일, 김현태
21회 : 한태식, 이상준, 이세진, 김수배
22회 : 정한용, 김광준, 김현숙, 오황영
23회 : 이선덕, 조병학, 김재한, 김민영, 김영식
24회 : 임무호, 최창근, 조중래, 이범도
25회 : 조대현, 김선열
26회 : 문형철, 최교석, 최태영, 성정희, 정기춘, 박재길, 문태화, 신동일
27회 : 오애영, 윤영한, 박수길, 강찬신, 이무택
28회 : 이석원, 이은주, 정지연
29회 : 이경우, 이국재, 안성진
30회 : 황인찬, 송관식, 정은주, 전두한, 손은실, 이양란,
31회 : 정해경, 나금희, 고희만, 임기상, 김미숙, 이동익, 엄병호
32회 : 이흥노, 김미숙, 최문석
33회 : 이미정
34회 : 전정아, 조주연
35회 : 서유정
36회 : 정순철
37회 : 양수영, 송형록
38회 : 김수규, 임규리, 강민정, 정필련
39회 : 정재영, 이용준
40회 : 박성욱, 장정수
41회 : 구영준, 이은경, 김홍주
42회 : 공태선, 김혜진
기수모름 : 신영애

미주동문 일반회비

미주동문 조광수(50불) 9회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약동문회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단순하게 살자

(Simplify your life)

황 공 용(본지 편집인·부회장)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는 가끔 너무

도 단순한 것
을 복잡하게 생각

함으로써 뜻하지 않

은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대인은 정신질환을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藥師라는 전문인으로서도 넉넉히 짐작한다. 그 예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전에 나타나는 그 많은 신경안정제의 처방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신경정신과의 처방이 아니더라도 신경안정제는 현대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너무도 보편적인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올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 약사들의 삶을 쉽다고 생각한다. 또 단순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전문지들의 홍수, 제약회사의 광고물, 세금계산서, 공과금 납부서 등 잠시만 손을 놓으면 책상은 금방 서류로 홍수가 난다. 그런 와중에 처방전 보관하랴 신약정보를 획득하랴 정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분주해서 삶 자체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쫓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필자는 “단순하게 살아라”(Simplify your life)라는 책을 읽고 살기위한 첫 제안인 일터를 정돈하라는 항목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정돈, 정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단순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만 낭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과 진열대로부터 지금 당장 두어시간 정도를 들여 시행한다면 그 보람이 크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대통령의 집무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 방법은 우리 藥師의 일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상위에 있는 또는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4등분한 주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종이 한 장도 책상위에 남기지 않는 이 방법은 나중엔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다. 4등분은 다음과 같다.

1. 버려야 할 것 : 첫 번째 구역으로 전부 버릴 것이다.

- 일주일이상 묵은 신문, 전문지
- 반년 이상된 카달로그
-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잡지
- 연도가 안맞는 메모장, 다이어리
- 해묵은 크리스마스카드
- 오래된 여행 관련 팸플릿
- 다시는 보지 않게 될 오래된 서적
- 더이상 갖고 있지 않은 도구나 기계사용서

2.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 : 두 번째 구역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서 해결될 것들을 놓는다. 내가 직접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종류들로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3. 지금 해야 할 일 : 세 번째 구역에는 당장 해야 할 것들을 모아 놓는다.

도매상 주문, 제약회사 주문, 기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들이다.

4. 그 외 : 네 번째 구역은 시간을 두고 할 일들을 분류한다.

이렇게 지금 당장 책상과 주위를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며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게 된다. 전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수북했던 책상이 깨끗한 공간이 되며 다른 곳들도 정리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화두가 계미년 초두부터 회자되고 있다. 자긍심을 가져라. 밝은 미래를 확실히 믿자. 무조건 긍정적이 되자. 선명한 Vision으로 기쁘게 일하자.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갖자.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자.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자 등 7가지가 얘기된다. 우리동문 여러분들이 회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2003년이 되기를 기도해본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徐

약학대학 발전기금 모금 행렬이 심상치 않다. 개인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는 기금을 쾌척하신 선배님에서 부터 부부동문의 정을 과시한 동문들은 물론 적은 액수라도 오히려 미안하며 취지에 흔쾌히 동참해 준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열기가 겨울 한파를 녹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약학관의 기초는 이미 견고해졌다.

明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만을 찾아 구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내는 슈퍼라치(슈퍼마켓 + 파파라치)가 등장했다 한다. 올해 우리 개국가는 전문적인 파파라치의 등장으로 크게 흥역을 치른적 있다. 한 사이트(www.posang.co.kr)에서는 30일 꼬박 아르바이트해도 3~4일 투자해서 번 포상금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한다. 20가지가 넘는 이들 신종 포상금 사냥꾼을 아는대로 소개 할까 한다. 자판기 불법 설치를 신고하는 '자파라치',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산파라치',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노파라치', 유원지 부근 음식점들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가는 '땅파라치', 최근 증권거래소의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주파라치'... 이중 일부 노파라치 중에는 점대부를 부러거나 술을 시켜먹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한다. "에이.....치사한 X!"

庸

낮술 먹고 몽롱한 정신을 우격다짐으로 추스리고 아무일 없는듯이 집에 들어가 아버지 저녁 챙겨드리고 뉴스보고 잠자리에 드시면 또 나가 저녁술 먹고, 그래도 성에 안차면 밤술도 먹는 생활이 지난 가을에서 시작하여 아직도 계속된다. 가당치도 않게 아직도 가을을 타는 철없음을 정녕 어리하라-.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기는 오는 걸까

洙

어린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던 말 중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일 것이다. 더욱욱 종교적 관점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수도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이, 상대방의 순수성과 희망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경우라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죄값을 치르는 것 같다. 정의로운 사회속에 정의로운 자가 많아 정의롭게 살다 한 생을 마치는 세상..... 계미년 새해 벽두에 작은 소망을 빌어본다. 중앙 약대 동문회 유영후 회장님을 비롯한 약대 발전에 애쓰시는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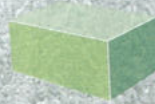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구를 모십니다

동문회 :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추운 겨울에도 엑소리제와 함께

처방전이 필요없는 체중감소보조제 엑소리제
엑소리제는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엑소리제와 함께 당당하게-

건강 때문에 살을 빼려고 하는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몸 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잘못된 체중감량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체중감량이 필요하신 분이려면 엑소리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당당하게, 엑소리제와 함께!

엑소리제와 함께 꾸준히-

체중감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엑소리제가 아니라도 좋은 처방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 복용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내 식약청 승인을 받은 엑소리제는 체중감소보조제입니다. 엑소리제는 운동과 함께 하루 두번 2캡슐씩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엑소리제와 함께!

엑소리제와 함께 건강하게-

체중감량을 위해 무작정 굶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체중감량을 하더라도 필요한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무리한 체중감량보다 운동과 알맞은 식습관이 오히려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체중감소 보조제가 필요하시다면, 엑소리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엑소리제와 함께!

엑소리제는 병원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 입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